

<2015.05.14.~2015.05.15.>

**奎北日報**

2015년 05월 15일 금요일  
007면 자치시대

##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 정책조정회의 “지역역량 강화 후 민간에 위탁해야”

고창군은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정책조정회의는 고창군이 지역민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날 박우정 군수,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등 14명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과 강화갯벌 교육센터 물새알 문인아 대표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이들은 “운영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으로 행정의 주도하는게 효율적이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후 민간에 위탁

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현명한 보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만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중요성 교육과 생태관광 소득,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우정 군수는 “단절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연계해 고창이 자연생태 연안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면모를 갖추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지난 13일 고창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우정 군수와 참석자들이 갯벌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고창군, 갯벌방문자센터 운영안 '고심'

### 전문가 참여 정책조정회의 개최 행정주도 후 민간위탁 의견 개진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조정회의가 13일 군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정회의는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 소장 및 팀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자문과 토

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적정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과 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 문인아 대표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했으며 운영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으로 행정주도형이 효율적이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후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되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현명한 보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만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중요성 교육과 생태관광 소득,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

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용시설 마련 등 체험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아날로그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재 방문율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우정 군수는 "단절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연계해 고창이 자연생태 연안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면모를 갖추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1@

/편집=김원형기자·kims7942@

## **전민일보**

2015년 05월 15일 금요일  
009면 지역

### **고창군 정책조정회의 개최**

### **갯벌 방문자센터 놓고 토론**

고창군은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군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은 이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우정 군수는 “단절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연계해 고창이 자연생태 연안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면모를 갖추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임동갑기자





13일 박우정 고창군수와 관련 관계자들이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고창군정 '전문가·군민' 목소리 귀담아

### 정책결정 과정 소통행정 추진 정책조정회의 성료

고창군이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군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은 이번 정책조정회의

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과 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 문인아 대표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참석자들은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현명한 보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만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중요성 교육과

생태관광 소득,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강구했다.

전문가들은 운영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으로 행정주도형이 효율적이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후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되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용시설 마련 등 체험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아날로그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재 방문율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신약회기자/syhee5311@hanmail.net



고창군은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있다.

## 고창, 정책 대안 도출 위한 정책조정회의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 논의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군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은 이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과 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 문인아 대표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했다. 참석자들은 고창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현명한 보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만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중요성 교육과 생태관광 소득,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강구했다. 전문가들은 운영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으로 행정주도형이 효율적이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후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되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용시설 마련 등 체험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아날로그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재 방문율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박우정 군수는 “단절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연계해 고창이 자연생태 연안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의 면모를 갖추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원 기자



## 고창군 정책조정회의 개최 갯벌 방문자센터 운영 논의

고창군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은 이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과 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 문인아 대표를 초청하여 지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운영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으로 행정주도형이 효율적이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후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되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용시설 마련 등 체험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아날로그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고창, 정책대안 도출 조정회의 개최

### 전문가·군민 참여 갯벌 방문자센터 문제점·운영방안 논의

고창군은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군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쳤다.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은 이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

연구원과 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문인아 대표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참석자들은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현명한 보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만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중요성 교육과 생태관광 소득,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강구했다.

박우정 군수는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전국 > 전북

## 고창군, 월2회 정책조정회의에 외부 전문가 참여 '눈길'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5.05.14 14:43:35 송고



전북 고창군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갯벌 방  
문자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15.05.14/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은 군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군정 추진에 탄력을 얻고 있  
다.

군은 민선 6기들어 민·정·행정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매월 2회)하  
고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문인아 물새알 강화  
갯벌교육센터 대표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 고창갯벌방문자센터 운영 방안 머리맞대

### 고창군 정책조정회의 개최 주민-전문가 등 참여 토론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군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관련 실과소장, 팀장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전문가 14명은 이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 방안을 놓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과 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문인아 대표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참석자들은 고창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현명한 보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만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중요성 교

육과 생태관광 소득,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강구했다.

전문가들은 운영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으로 행정주도형이 효율적이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후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되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용시설 마련 등 체험마음과 연계한 체류형, 아날로그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재 방문율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